



광주환경공단 ‘대한민국 환경공기업협의회’

광주환경공단은 지난 4일 본부 대회의실에서 전국 5개 광역 환경공기업과 함께 ‘대한민국 환경공기업협의회’를 개최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과 수질 시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사진)

협의회는 지난 2023년 11월 출범한 협의체로, 광주환경공단을 비롯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대전시설관리공단, 부산환경공단,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인천환경공단 등 전국 6개 환경공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협의회 운영의 지속성과 체계성을 높이기 위한 회칙 제정과 국제청 공식 단체 등록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으며, 특히 하수처리장 공정 운영과 연계한 수질시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환경부 제도 개선 요구사항이 심의·의결됐다.

정상아 기자



광주대 RISE사업단, 산학연계 운영위 성료

광주대학교 RISE사업단 ProgressGU센터는 최근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지역 정착·취업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1차 산학연계 공동협의체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사진)

지난 3일 광주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는 ProgressGU센터 최지수 센터장을 비롯해 내부 위원과 외부 4개 기관(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KBC,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유스틴 아카데미) 위원이 참석, 유학생의 전공 기반 실무 연계 교육과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산학협력 모델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지역 산업체와 연계한 채용형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계획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사회 정주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 및 커뮤니티 기반 정착 지원 모델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노병하 기자



서부소방, 노후 공동주택 긴급화재안전점검

광주 서부소방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관내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사진)

이번 점검은 지난 6월24일과 지난 2일 부산에서 2명의 자매들이 연이어 공동주택 화재로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긴급히 추진되는 조치이다.

점검 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하고 스프링클러 등 자동 소화설비가 미설치된 공동주택 등을 우선으로 했으며 서구 관내 108개 노후 공동주택 중 가장 시급한 11개소를 최종 선정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펌프 등 주요 소방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생명의 문인 방화문, 피난계단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상태에 대해서도 꼼꼼히 확인할 예정이다.

정승우 기자



광주 광산의회-대구 수성의회, ‘자매결연’

광주광역시 광산의회가 대구광역시 수성의회와 교류협력과 상생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고 6일 밝혔다.(사진)

광산의회는 지난 4일 전북 남원 일원에서 수성의회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양 의회 의장단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광산구의회와 수성구의회는 지난해 9월 광산구의회의 제안으로 검토가 시작되어 자매결연 의향을 교환해 왔으며, 지난해 11월 수성구의회 의장단의 광산구 방문, 올해 4월 광산구의회 의장단의 수성구 방문 등을 거치며 협약을 본격 추진했다.

양 의회는 이번 협약으로 지방자치의 가치를 높이고, 주민 중심의 선진 의정활동을 실현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의회 운영, 입법 정책, 주민참여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교류와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김상철 기자



광주여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산학협력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지정에 위한 산학협력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했다.(사진)

6일 광주여대에 따르면 지난 3일 사회복지학과가 점단요양보호사교육원(대표 한정실)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점단요양보호사교육원은 2012년 개원 이래 전문성을 갖춘 요양보호사 양성에 힘써 왔으며, 2020년에는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으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현재 교육원은 실습 자격을 갖춘 요양시설 4곳, 방문 재가시설 5곳, 주야간 재가시설 3곳과 협약을 맺고 교육생의 현장실습과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광주여대 사회복지학과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에 필요한 현장실습과 구인·구직 연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으며, 향후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의 토대를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노병하 기자

‘산불재난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발제

호남대 소방행정학과 이종화 교수

호남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이종화(사진) 교수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산불재난 제도개선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도심산불에 대한 소방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를 했다.

호남대에 따르면 이 교수는 발제를 통해 “도심 인접 산불은 단순한 산림 화재가 아닌 구조·대피·교통 통제 등 다기능이 결합된 복합재난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에 맞는 소방 주도의 통합 지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도심산불은 복잡성과 파급력이 큰 만큼, 초기부터 일관된 지휘가 핵심”이라며 “위기 상황에 따라 지휘권이 전환될 수 있도록 ‘스위칭 프로토콜(Switching Protocol)’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주민의 역할에 주목하며 “주민은 단순한 피난 대상이 아니라 초기 대응의 주체로 인식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자율방재단은 경보·대피 전달형으로 개편하고 청장년층과 연계된 지역 기반 공동 대응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도심산불은 단순한 자연재난이 아니라 도시의 인명과 기능을 동시에 위협하는 종합적 재난”이라며 “소방의 중심적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사전 대응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인사

광주은행 ◇부점장 △인사지원부장 안창문 △잠실금융센터장 김관호 △투자금융부기



13년째 모교 사랑… 구승룡 총재 올해도 발전기금 기부

13년째 전남대에 발전기금을 기부해 오고 있는 구승룡 (사)국제키와니스 한국지구 종신명예총재가 지난 2일 1000만원을 추가로 기부하며, 누적 기부액 4886만 3250원을 달성했다.(사진)

6일 전남대에 따르면 구 총재는 지난 2012년, 300만원을 시작으로 전남대에 첫 기부를 한 이래 매년 학교의 의미 있는 프로젝트에 동참해왔다.

김남주홀 건립기금, 디지털도서관 건립기금 등 전남대의 교육·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한 기금 조성에 꾸준히 힘을 보태며, 진정성 있는 기부 문화를 실천해 왔다.

구 총재는 1979년 전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 총동창회 고문, 일곡지구 회장, 동창장학회 이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개교 72주년을 기념하는 ‘자랑스러운 전남대인’으로도 선정된 그는 “학교의 발전이 곧 지역사회의 미래로 이어진다고 믿는다”며 “의미 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구 총재는 의료 현장에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도 앞장서 왔다.

2022년에는 하남공립지역아동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아동 대상 무료 건강검진을 제공했으며, 국제 비영리 봉사단체인 ‘국제키와니스 한국지구’ 36~39대 총재 및 종신명예총재로서 요오드결핍장애 예방, 저소득층 아동 지원 등 세계적인 나눔 활동도 함께했다.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감사패(2009),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장(2010), 제29회 무등리탑 봉사상(2019)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이근배 전남대 총장은 기부금 전달식에서 감사패와 꽃다발을 전달하며 “13년간 한결같은 애정으로 모교를 응원해온 구 총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이러한 나눔이 전남대의 미래를 밝히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교육청,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 방안 ‘공유’

전라남도 교육청은 최근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 네트워크’를 열고, 전남 수업 대전환을 주제로 교사 간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사진)

지난 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협의에는 △수업나눔학교 △질문하는학교 △도 지정 연구학교 △2030원격화상수업 운영학교 참여 교원 100여 명이 참여해 학교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교사가 학생 입장이 돼 직접 모의 수업을 체험하는 ‘수업나눔학교’ 사례, 자기주도적 질문과 토론이 일상화된 ‘질문하는학교’, 전남형 미래교육 모델을 적용 중인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 연구학교’, 타시도 및 국제 교육기관과 공동수업을 운영 중인 ‘2030원격수업’ 사례가 소개돼 높은 관심을 끌었

다. 사례 발표 후에는 사업별 운영 교사들이 모여 실천 과정에서 느낀 고민을 나누고,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해결책을 찾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이번 협의회는 그동안 사업별로 만나오던 담당자들이 전남 수업 대전환이라는 목표 아래 한자리에 모여, 실제 수업 사례를 중심으로 경험을 연결하고 현장의 변화를 함께 공유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학생 주도성 키움 수업이 학교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를 찾아가는 맞춤형 연수를 비롯해, 저경력 교사를 위한 실습 중심형 연수, 에듀테크 기업과 연계한 지역 특화형 연수 등 그 과정만 해도 100여 개가 넘는 예정이다.

노병하 기자